

[惜しみなく与える木] - 유튜브 덴뿌라Languages

아낌없이 주는 나무

\* おしめない[惜しみない] 아낌없는

\* あたえる[与える] 주다.

木が1本ありました。

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.

\* 1本[いっぽん] 한그루, 한자루.

そして、その木に遊びに来るかわいい少年がいました。

그리고, 그 나무에게 놀러 오는, 귀여운 소년이 있었지요.

\* しょうねん[少年] 소년

少年はいつも木の枝にぶら下がり遊んだり、木の實をとって食べたりしていました。

소년은 매일,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, 열매를 따 먹기도 하었어요.

\* ぶらさがる[ぶら下がる] 매달리다

\* えだ [枝] 가지

\* きのみ[木の實] 나무열매

また、木陰でお昼寝もしました。

또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지요.

\* こかげ[木陰] 나무그늘

\* ひるね[晝寝] 낮잠

少年は木が大好きで、木も少年のことが大好きでした。

소년은 나무를 사랑하였고,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어요.

2人はとても幸せでした。

둘은 아주 행복하었지요.

\* しあわせ [幸せ] 행복, 행운.

いつの間にか少年は青年となり、木も大きく育ちました。

어느덧 소년은, 청년이 되었고, 나무도 크게 자랐어요.

\* いつの間[いつの間] 어느덧, 어느새

- \* せいねん[青年] 청년
- \* そだつ[育つ] 자라다, 성장하다.

歲月が経って少年は大人になりました。  
세월이 흘러, 소년은 어른이 되었어요.

- \* さいげつ[歲月] 세월
- \* たつ[経つ] 시간이 흐르다, 경과하다.
- \* おとな[大人] 어른, 성인

彼は木を訪ねて來ると根本だけを残して木を切り、それを賣りました。  
그는 나무를 찾아와, 밑동만 남겨 놓고, 나무를 베어서 팔았어요.

- \* たずねる[訪ねる] 찾다, 방문하다.
- \* ねもと[根本] 뿌리, 밑동, 근본
- \* のこす[残す] 남기다
- \* きる[切る] 자르다, 베다.

それでも木は、彼が來ることが嬉しくて幸せでした。  
그래도 나무는, 그가 오는 것이 좋았고 행복하였지요.

老人になった少年は、再び木を訪ねてきました。

노인이 된 소년은, 다시 나무를 찾아왔지요.

- \* ろうじん[老人] 노인
- \* ふたたび[再び] 다시, 재차

木が言いました。

나무가 말했어요.

「僕が君にあげられるものは、もう何もない。  
“나는 너에게 줄 거라고는, 이제 아무것도 없어.

僕には根本しか残っていないんだ。」

나는 밑동만 남았거든.”

「わたしは何もいない。

“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.

※ 음성 わたし 오류.

ただ座って楽に休めるところでもあればいいな。」

그저 앉아서, 편히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.”

\* すわる[座る] 앉다

\* やすめる[休める] 쉬게하다

老人が言いました。

노인이 말하었어요.

「座って休むには老木の根本が最高さ。

“앉아서 쉬기에는,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야.

\* ろうぼく[老木] 노목, 늙은나무

\* さいこう[最高] 최고

さあ、ここへきて座りなさい。」

자, 이리 와서 앉아.”

老人は木の言うとおりにしました。

노인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.

\* 言うとお리 말하는데로

木はとても幸せだったとさ。

나무는 무척 행복하였답니다.